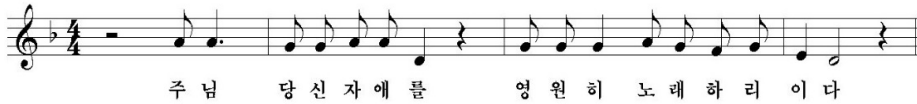


## 📖 전례안내

	합동미사	
	12월 24일	12월 31일
해설	송연주	서도
독서	이승엽, 강신정	정해성, 이경옥
복사	유웅재, 김대산	김건우, 엄성운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목주기도	53686 단	

## 🎵 화답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 🎵 본당 소식

### 1. 성탄 대축일 & 새해 미사 공지

- 12월 24일 일요일 오후 7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성탄 밤 미사 후에 주일학교 공연 그리고 여성위에서 준비한 다과 및 음식바자회 감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12월 31일 일요일 오전 10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교중미사
-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2. 재무위원회 공지사항

2023년 현금 영수증 신청하실분은 구역장님께 12월 30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주일학교 소식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1	Lector2	Altar
12/24/2023				Dae San Kim
12/25/2023	겨울방학			Jua Kim
12/31/2023	겨울방학			Seongyun Eom
1/7/2024	개학-눈썰매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하느님의 본성은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용서는 하느님 본성의 가장 완전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은 일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느님 가족의 일원도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더 큰 사랑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기도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에 나타나는 “하오니”(하듯이)는 예수님께서 자주 쓰신 단어입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루카 6,36)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이처럼 “하오니”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용서의 마음은 하느님의 거룩함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적극적인 참여”를 청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용서의 힘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청해야 하는 은총은 성령입니다. (루카 11,13 참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갈라 5,25)이 모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똑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용서의 일치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 18,35)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느님 가족 공동체에 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선물, 곧 성령이신 하느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기도로 성령을 청하되 그 첫 목적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만 탈렌트(약 6조원)를 탕감받고도 백 데나리온(약 1000만원)을 탕감해주지 못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 매정한 종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마태 18,23-35 참조)

교육선교위원회

(나해) 대림 제4주일  
 (2023년 12월 24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박재희 요한	216-861-4630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교사회 기도회	19:00
캐뚼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캐뚼 기도회	20:30	수요일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